

‘호남학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 심포지엄

문화전당 콘텐츠사업 연결·전문연구센터 필요

지역의 중요한 문화 자산인 호남지역 기록문화 유산이 제대로 발굴 조사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축사업과 긴밀해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호남 지역 각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과 전문연구센터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25일 광주 YMCA 무진홀에서 열린 호남학 관련 심포지엄에서 ‘호남기록 문화유산 사업 성과와 한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대현(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책임교수)씨는 “기록문화유산의 조사와 정리 작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공식적인 호남기록문화연구센터나 자료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학 현황 및 발전방안-한국학자센터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김경숙(호남대 한국학자센터 소장) 교수 역시 호남학 자료의 종합적인 조사·수집·정리·연구·활용을 담당할 종합센터를 구축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연구자들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학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지역문화호남교류재단과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광주일보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이 지난 2010년

단체들 간 연구결과 교류·웹사이트 구축·워크숍 등 강조



지역문화호남교류재단 등이 주최한 심포지엄 ‘호남학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가 25일 광주 YMCA 무진홀에서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부터 진행하고 있는 ‘호남권 기록문화 유산 발굴·집대성 콘텐츠화 사업’(이하 콘텐츠화 사업)에 대한 성과와 향후 방안 등을 살펴본 자리였다.

올해 1월 광주시가 제정한 ‘호남학 진흥 조례’에 대해 소개한 박광석(광주시 문화예술 진흥과장)씨는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호남기록문화 유산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어렵기는 하지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권역별

사업에 중앙 아시아 지역의 신화·설화 등을 아카이브 사업이 포함된 점을 감안, 이와 연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오는 2013년 나주로 이전하는 콘텐츠진흥원이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착안,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내용은 호남학 연

구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체의 필요성과 연구기관들의 협력이었다.

박광석씨는 문화부 산하에 한국학 호남진흥원(가칭)을 설립, 호남학과 호남문화 진흥을 총괄하고 대학연구소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예원(조선대 한문학과 교수)도 영남지역에 비해 후발주자인 광주·전남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호남학 연구단체들의 연구결과들이 서로 교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지역활성화연구소장)씨 역시 호남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들은 호남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완벽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각 연구기관들의 자료를 연계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넘어서 대중화·공공화를 목적으로 한 ‘콘텐츠화’를 제안했다. 예를 들면 한자로 되어 있는 원문 가운데 대중성이 있는 내용을 스토리텔링 작업으로 연결시켜 애니메이션이나 책자로 발간하는 등 새로운 예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호남학을 대표하는 종합 웹사이트 구축, 자료 수집과 가공을 위한 소장자 및 기획자 워크숍 개최, 신진 연구 인력 확보와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언급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내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 한자리에

내일 문예회관에서 ‘강동석과 함께하는 실내악 여행’



피아니스트 김영호(연세대 교수), 첼리스트 조영창(독일 옛셋플크방 교수), 클라리넷 송정민(KBS교향악단 부수석)과 재재일, 여기에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까지..

국내 내로라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선다.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강동석과 함께하는 실내악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 서는 연주자들은 올 봄 서울에서 열렸던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에 참여한 이들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피아노, 클라리넷, 첼로를 위한 삼중주 4번 작품 11’(김영호·재재일·조영창)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4단조 작품 32’(김영호·강동석·조영창), 플랑크의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고성으로의 초대’(송정민·강동석·김영호), 글리에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작품39’(강동석·조영창)다.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으로 티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문의 062-613-83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오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컨설팅’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태)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민)는 26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과 지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역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8개 분야별로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

와 함께 구체적인 개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지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arko.artskore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딸

최오승윤·오수경·오병재 부산비엔날레 기획 전시

‘위대한 유산’ 주제로 내달 14일까지 부산아트센터



오승윤 작 ‘산과 바다’

한국 서양화단의 거목인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대를 이어 확고한 작품 세계를 굳혀온 후손들이 한 데 모인다. 그것도 호남이 아닌, 영남의 한 북관, 국내와 미술인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부산비엔날레 현장에서다.

오지호 화백의 아들 고 오승윤(1939~2006년) 화백과 손자·손녀인 병재·수경씨의 초대전이 다음달 14일까지 부산시 동구 수정동 부산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고 오승윤 화백과 두 자녀의 작품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대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초대전은 2012 부산비엔날레가 추진하는 ‘갤러리 페스티벌’ 중 하나로 기획됐으며 작품 29점이 전시된다.

최광범 부산아트센터 관장은 “오지호 화백이라는 큰 나무에서 뻗어나와 또 다른 큰 나무로 성장하는 등 3대에 걸쳐 화업을 이어가고 있는 오 화백 일가의 예술 세계를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영남 지역 민들에게 호남 대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최 관장은 애초 오지호 화백을 비롯, 3대의 작품 세계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오지호 화백의 작품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다, 전시 효과 등을 감안해 오승윤 화백 및 두 자녀의 작품들로 채웠다고 한다.

전시에서는 오방정색(五方正色)을 바탕으로 한 오승윤 화백의 ‘풍수(風水)’ 시리즈뿐 아니라 그의 ‘예술혼’이 고스란히 담



오수경 작 ‘온귀비’



오병재 작 ‘On-going’

겨 있는 ‘바람과 구름’, ‘산과 바다’ 등의 작품과 장녀 수경씨의 ‘부림’, ‘창밖의 풍경’, ‘만발’, 아들 병재씨의 ‘On going’ 시리즈 등이 선을 보인다.

오수경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감히 생 각조차 못했는데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전시를 하게 됐다”면서 “특히 아버지의 새로운 화풍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또 “부산

뿐 아니라 광주에서도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갤러리 페스티벌은 부산비엔날레가 지역 미술 시장 활성화 및 미술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올해는 부산아트센터 등 19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화 / 제 / 집 / 중 / 안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 알짜배기 여행회화 * 시리즈 외국인 필수 각권 7,000원

* 주제별 단어장 * 시리즈 외국인 필수 각권 6,000원

* 한자능력검정 * 시리즈 대한한자연구회

수험생을 위한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로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진검승부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출문제의 상황, 학습성취도 평가

맞춤 고사성어백과
대신·익사·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직 기출문제 포시
알짜배기 고사성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